

이강 Lee Kang (b.1970)

 @_leekang_

학 력 단국대학원 회화과 졸업

- 개 인 전
- 2023 제31회 대전 숨 갤러리
 - 제30회 PFS 갤러리
 - 2022 제29회 갤러리 이주
 - 제28회 리나 갤러리
 - 제27회 숨 갤러리
 - 제26회 희수 갤러리
 - 제25회 갤러리 위
 - 2021 제24회 경주 라한셀렉트 2층 오션 갤러리
 - 제23회 갤러리 위
 - 2020 제22회 갤러리 아프리아
 - 제21회 숨 갤러리
 - 제20회 송미영 갤러리
 - 제19회 분당 보바스
 - 2019 제18회 희수 갤러리 인사동
 - 제17회 짙은 갤러리 홍성
 - 제16회 아트앤 갤러리 삼청동
 - 2018 제15회 대전 갤러리 고트빈
 - 제14회 희수 갤러리
 - 제13회 대전아트 갤러리
 - 제12회 나락실 갤러리
 - 2017 제11회 백희 갤러리
 - 제10회 나락실 갤러리
 - 2016 제9회 세종시 씬머갤러리
 - 제8회 아델라 벨리갤러리 초대전
 - 제7회 희수 갤러리 초대전 (인사동)
 - 제6회 갤러리 예담
 - 2015 제5회 올림푸스 홀
 - 제4회 공군 아트갤러리 초대전
 - 제3회 신평미술관 초대전
 - 2011 제2회 라메르 갤러리 초대전
 - 2007 제 1회 평택호 예술관

[Artist's Note]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면 나는 진지하고 어려운 것을 싫어한다는 말이다. 과연 이 말뜻에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이렇게 의문이 시작되면서 자신을 탐구하는 것이다.

나는 '작가 이강'이다.

그림 그리는 작가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그림을 해석하면서 시선이 오로지 자신에게로 간다는 것이다.

'내적 유토피아'

9살짜리 꼬마가 커다란 자개장 문 앞에 서 있다.

첩첩산중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사슴에 복숭아 열매에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화려한 자개장 문을 바라보며 설래임이 가득하다. 나의 그림은 이렇게 포문을 연다. 나에게 그림이란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민을 탐구하고 정답을 찾아가며 통찰을 얻기 위한 의미 있는 여정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왜 사는지의 고민에 맞닥들일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첩첩산중에 있던 할머니 댁이다. 할머니 댁 방문을 열고 들어가 또다시 자개장 문을 여는 순간 그곳은 사유의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된다. 그림은 자개장을 바라보며 더없이 풍요롭고 행복한 순간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삶의 여러 질문에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듯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